

「천년의 발자취, 새로운 천년의 도약」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
2017. 10. 18(수), 13:30~17:00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빛가람홀

주최_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주관_



광주전남연구원

후원_

광주매일신문사



행사 일정

□ “전라도 천년 D-1” 축하공연 및 기념식(13:00~14:30)

진행 : 서 화 진MC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소요	
13:00	13:30	30'	▪ 참석자 등록 ▪ 전라도 천년 전시전(13:00~17:00)
13:30	14:00	30'	▪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 “약무호남시무국가(부제 : 봉황이 깃든 뜻은)”
14:00	14:20	20'	▪ 개회 ▪ 국민의례 ▪ 인사말
14:20	14:30	10'	▪ 전라도 천년 특별 영상 시청 ▪ D-365 선포, 카운트다운 ▪ 천년의 노래

□ 심포지엄 (14:30~17:00)

진 행 : 김 중 일(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장)

시			내 용
부터	까지	소요	
14:30	15:20	50'	▪ 기조강연 • 주제 :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 – 고 석 규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前 목포대총장)
15:20	15:30	10'	▪ 휴식
15:30	17:00	90'	▪ 좌담회 – 좌장 : 심 원 술 한양대 교수(한국경영사학회장) • 주제 :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패널 토론 – 홍 성 덕 전주대 교수 – 최 영 태 전남대 교수 – 유 성 기 동북아경제연구원장 – 염 미 경 제주대 교수 – 송 진 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 방청객 질의·응답
17:00			▪ 폐회

목 차

○ 인 사 말	ii
○ 발표・토론자 프로필	xvi
○ 기조강연	
주 제 :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	1
고 석 규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前 목포대총장)	
○ 좌담회	35
좌 장 : 심 원 술 한양대학교 교수	
주 제 :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홍 성 덕 전주대 교수	
- 최 영 태 전남대 교수	
- 유 성 기 동북아경제연구원장	
- 염 미 경 제주대 교수	
- 송 진 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부 록〉	
○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75

기 념 사



광주·전북과 함께 전라도 천년 역사의 중심지였던 나주에서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은 지금의 전북 일원인 강남도와 지금의 광주·전남 일대의 해양도를 합쳐 전라도라 부른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천 년간 전라도는 우리 한반도 역사무대에서 주연으로 당당하게 한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전라도는 드넓은 들판과 바다에서 나온 넉넉함 덕분에 나라의 곳간 역할을 해온 땅이었습니다.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비마다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던 의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만의 특유의 역동성과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기회와 희망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남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전라도가 다시 비상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광주·전북과 손잡고,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첫 공식행사인 이번 행사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전라도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미래 비전을 정립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도민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8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 재 영

기 념 사

광주와 전남, 전북! 전라도 삼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천년 만에 내려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에 준비되어 있기 위한 희망의 시간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고 자란 형제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
속에,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의 무게와 깊이를 지켜내기 위해 자주 만나고, 머리를 맞대온 오늘과
같은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뿌리를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서로 굳게 손잡으며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열어 낼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연대해 왔고, 어려울 때마다 더불어 치유 받고
위로받으며 용기 있게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처럼 전라도의 새 역사를 함께 써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이어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후손에게도 전라도가 자부심과 긍지의
이름이 되고, 더불어 넉넉한 삶의 토대일 수 있도록 천년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한편으로
그 바탕 위에 미래의 새로운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풍요로운 전통과 유산은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미래의 비전들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서 인정받으며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여야 이룰 수 있는 꿈, 오늘 이 자리가 전라도 미래 새 천년의 꿈을 520만 지역
민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학계와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협업으로서 새로운 천년의 도약을
완수해 가는 힘찬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천년에 단 한 번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후손들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전라도의 힘을 더 굳건히 모아내 주시기를 청 드리며, 역사적인 일들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10. 18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기 념 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은 고려 현종 당시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지방행정구역을 설치한 지 1,000년째 되는 해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따라서 전북·전남·광주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새로운 천년을 이끌 자긍심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광역 시·도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전라도 천년 상징물과 천년 숲
조성 등 30개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이 전라도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전라도 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주신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님과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
대행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시·도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올 가을 풍성한 결실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8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축 사



정도 천년을 1년 앞둔 오늘, 호남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에서 뜻깊은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념행사가 있기까지는 전라도가 전국 8도에서 가장 깊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같은 뿌리에서 났다는 자부심이 3개 시도민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앞으로의 천년을 함께 상생발전하자는 하나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토록 한 마음이 되어 기념사업을 개최하는데 마음을 모아 주신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님과 윤장현 광주시장님, 그리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도의 모든 민초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천년 전 거란이 침입했을 때, 425년 전 왜군이 침략했을 때, 100여년 전 일제가 국권을 침탈했을 때, 그리고 불과 37년 전 군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침탈했을 때에도 그 항전의 중심에 전라도가 있었습니다.

전라도는 동북아의 경제와 문화가 교류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장보고의 해상왕국이 있었던 곳이었고, 백제에 불교가 최초로 유입된 곳이었으며, 일본에 우리의 한자와 유교문화를 전파했던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전라도였습니다.

이토록 전라도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빛나는 역사가 있고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전라도의 미래는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도 천년 기념일인 내년 10월 18일까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천년의 역사를 쓴다는 사명감으로 더 멀리 바라보며 차근차근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전남을 떠나 520만 전라도민들의 빛나는 미래 건설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념행사를 위해 호남 3개 시도가 서로의 마음을 모았듯이 앞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상생협력의 길을 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8

전라남도의회 의장 임 명 규

축 사



전라도 정명 1000년 1년을 앞두고....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의 1년을 앞둔 시점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을 도도히 흘렀던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나주와 전라도를 생각합니다.

나주는 영산강의 본류가 흐르고 있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수운이 발달하였으며, 물산의 집결지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전라도 정명이 바로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로서 고대국가로부터 나주가 남도의 수도였으며, 후삼국시대의 중요한 군사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삼국시대부터 세국의 집결지로서 조운선의 출발지였으며, 국가를 지탱시키고, 나라가 국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역할에 했던 우국충절의 고장이 전라도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의 국가 발전은 경부 축으로 편향되었고, 전라도는 산업화에 소외되면서 많은 인구 유출과 산업화를 밀받침하기 위하여 저곡가 정책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고대국가로부터 이어져 오던 나주가 그 역할의 대부분이 광주로 이전되면서부터 나주의 쇠락은 전라도의 쇠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곡창지대와 운반선이 드나들 수 있는 영산강을 기반으로 전라도의 수도의 소임을 다 하였던 전라도가 침체를 벗고 다시 재기를 하려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대 명제를 가지고 출발한 혁신도시를 품었던 나주가 앞장서서 전라도의 부흥의 선두주자로 다시 재기에 앞장설 것이며,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4차 산업과 IOT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에너지 벨리를 비롯한 산업의 틀을 바꿔 새로운 산업의 질서를 창조하며 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근대화애 소외되었던 전라도를 다시 신산업의 수도로 전라도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명 천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고장이 동일한 지역에서 그 명칭이 천년을 이어온 위업과 영광을 칭송하기보다는 천년의 흥망성쇠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천년을 창조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소회를 느낍니다.

다시 새로운 전라도의 시작을 알리는 정명 천년을 그려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천년의 나주와 전라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정명 천년의 위업을 기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외쳐 봅시다.

다시 새로운 천년의 전라도를 위하여!

2017. 10. 18

국회의원 손 금 주

환 영 사



존경하는 전라남·북도민 그리고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나주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주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인규입니다.

민족대명절이자 사상 최대 연휴였던 한가위가 지나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온 가운데 오늘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을 전남의 중심 고을이었던 우리 고장 나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우리 시에 개최토록 해주신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고려 현종 9년, 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이름을
정한지 천년이 되는 매우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천년 간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 속에서 호남은 소외의 연속에서도 강인한 정신과
의연함을 발휘해 우리의 민족정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의병운동,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천년은
이러한 호남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와 홀대를 극복하고 더 크게 발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나주시는 현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 곳, 빛가람 공동혁신도시를
3개 시·도와 이전기관,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세계 제일의 미래 에너지 메카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과 전북, 광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맞이하게 되는 전라도 천년,
그 유구한 역사의 주인공인 시·도민 여러분!
감축(感祝)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에 방문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 10. 18

나주시장 강 인 규

축 사



깊어가는 가을, 천년의 고도(古都)이자 미래산업의 중심인 이곳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열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주관기관을 대표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고, 바쁜 사도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전라남도 이재영 도지사 권한 대행님,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 오늘 행사를 후원해주신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해 주실 고석규 전 목포대총장님, 좌담회 사회를 맡아 주실 한양대 심원술교수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실 전주대 홍성덕교수님, 전남대 최영태 교수님, 동북아경제연구원 유성기원장님, 제주대 염미경교수님, 호남대 송진희 예술대학장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념식을 빛내주기 위해 매우 뜻깊은 축하공연을 선 보여주신 전남도립국악단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라도(全羅道)’는 고려시대에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가장 먼저 붙여진 이름이고, 고려 이후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 명칭이나 영역의 큰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전라도가 유구한 역사를 지녔고,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는 산과 강, 들판,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사람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을 터전으로 고인돌유적, 옹관고분, 청자, 판소리, 남종화 등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해와 남해로 열린 강과 바닷길은 일본, 중국 등 동북아 해상교류의 관문이었고, 고려와 조선의 경제를 지탱했던 조운로(漕運路)였습니다.

삼별초의 대몽항쟁, 고려말의 왜구 격퇴, 임진왜란·병자호란의 호남의병,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의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호국의 거점이었고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전라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와 낙후, 그리고 편견의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은 전라도 역사를 재조명해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전라도의 자산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천년을 잘 준비해 우리 후손들에게 전라도 출신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D-1년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미래 발전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결집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라도의 지역성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역학 연구에도 전념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0. 18

광주전남연구원장 박 성 수

축 사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익어가는 오늘 우리 전라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다짐하는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2018년을 딱 일년 앞두고 과거 천년의 역사적 의의를 되돌아 보고 미래 천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 깊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행사를 주최하신 전라남도 이재영 도지사 권한대행님,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광주전남연구원의 박성수 원장님을 비롯 관계자 모두에게 고마움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기초강연을 해 주실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님과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심원술 한양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서 고견을 들려주실 홍성덕 전주대 교수님, 최영태 전남대 교수님, 유성기 동북아경제연구원장님, 염미경 제주대 교수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고려 현종 9년(1018년) 강남도(江南道)와 해양도(海陽道)를 합쳐 전라도(全羅道)로 이름 붙인 지 1천년을 앞두고 과거 1천년의 호남의 역사와 인물·사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의미 깊은 행사입니다.

그동안 광주매일신문은 전라도 정도 1천년을 2년 앞둔 2016년부터 정도(定道) 1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새로운 미래 천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와 공익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광주·전남 미래 천년을 열자’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연중 시리즈는 3년간 장기

기획물로 전라도 정도의 역사적 의미, 전라도의 정신과 멋, 지역을 빛낸 인물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젠다를 제시했던 광주매일신문은 호남의 지난 1천년 역사와 인물·정신을 심도 있게 조명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라도 정도 1천년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정도 천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못된 역사 인식 바로세우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정도 천년의 국가사업의 필요성 및 기념사업,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자세와 열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전국에서 역사는 물론 문화와 사회 등 전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기에 향후 광주·전남의 미래 천년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 등을 현실감 있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현안을 조명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10. 18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남 성 숙

발표·토론자 프로필

구 분	사 진	프 로 필
기조강연		■ 성 명 : 고 석 규 ■ 소속 및 직위 : 목포대학교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주요 경력 - 호남사학회 회장 - 목포대학교 총장 -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좌 장		■ 성 명 : 심 원 술 ■ 소속 및 직위 : 한양대학교 교수 ■ 주요 경력 - 한국경영사학회 회장 - 한국인사관리학회 회장 -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토론자		■ 성 명 : 홍 성 덕 ■ 소속 및 직위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사)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부원장 ■ 주요 경력 - 일본 게이오대학 문학부 연구원 -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책전문위원
		■ 성 명 : 최 영 태 ■ 소속 및 직위 : 전남대학교 교수 ■ 주요 경력 -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인문대학장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구 분	사 진	프 로 필
토론자		■ 성 명 : 유 성 기 ■ 소속 및 직위 : 동북아경제연구원 원장 ■ 주요 경력 - 교육부 인적자원정책 운영위원 - 한국경영사학회 부회장 - 총신대 명예교수
		■ 성 명 : 염 미 경 ■ 소속 및 직위 : 제주대학교 교수 ■ 주요 경력(저서) - 『전쟁과 기억: 마을공동체의 생애사』 (2005) -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2008) - 『韓國の少子高齢化と格差社會』 (2011) -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2012)
		■ 성 명 : 송 진 희 ■ 소속 및 직위 : 호남대학교 교수 호남대 예술대학장 ■ 주요 경력 - 광주문화재단 이사 -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심의위원

기조강연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

고 석 규 교수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前 목포대총장)



전라도 청년 D-1 심포지엄

전라도 역사의 재조명

2017. 10. 18

고 석 규

(국립목포대학교 사학과)

목 차

제1장. 전라도 역사 개관

제2장. 호남문화 인식의 현황

제3장. 역사테마 파크 뽀뽀푸(Puy du Fou)

제4장. 5 18 민주화운동과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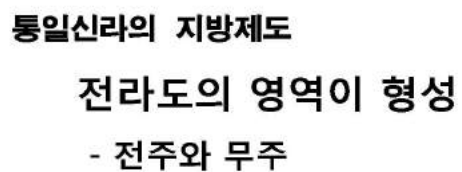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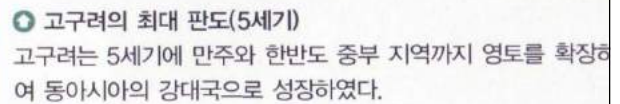
제5장. '호남'의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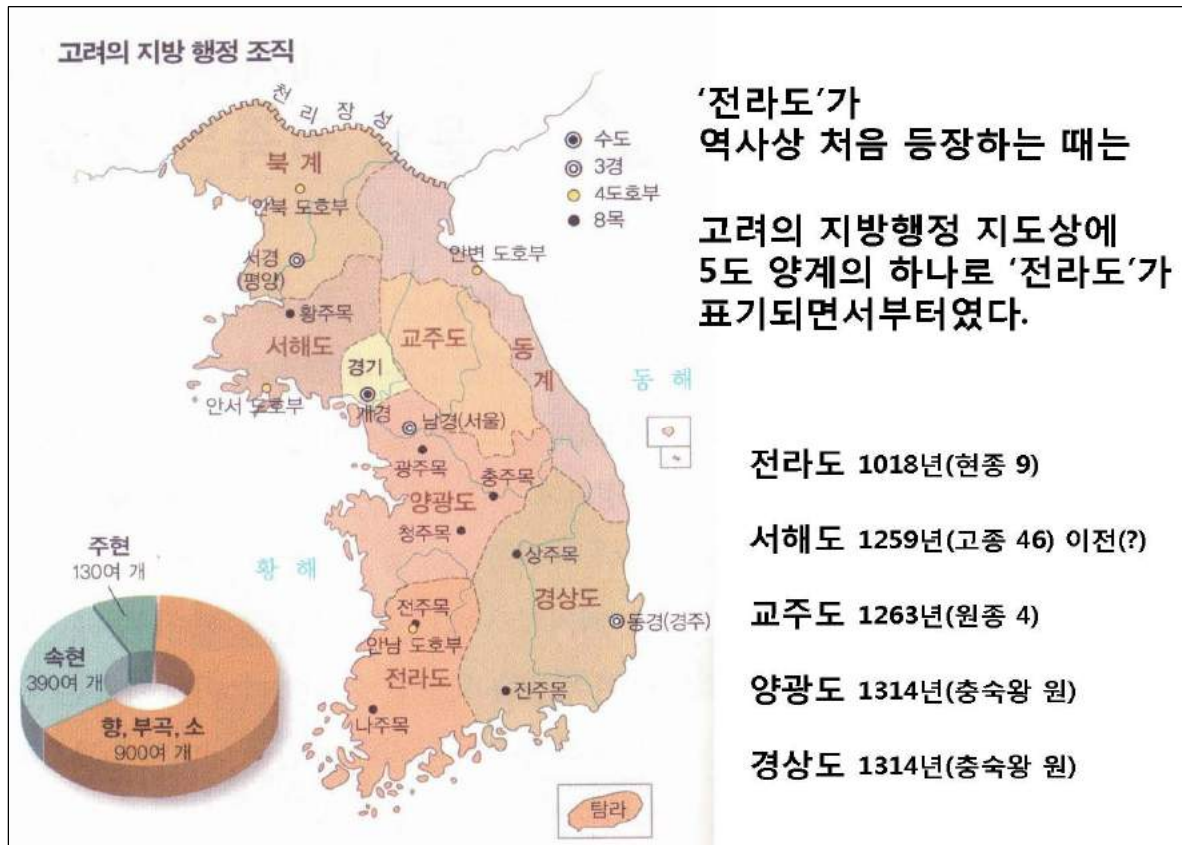
PART 1

전라도 역사 개관

■ 전라도 역사 개관

- 선사~삼국시대 :
6세기 중반까지 마한, 웅관고분사회 등 독립적인 문화권 형성
- 통일신라 :
1,500년 전 전라도 영역 형성, 완산주 · 무진주 · 남원경 설치
- 고려시대 :
1018년에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해 전라도라 칭함
- 조선시대 :
1896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분리
- 해방 이후 :
1946년 제주도 분리, 1986년 광주광역시 분리





고려 현종 9년(1018),
전라도 탄생

三 국역 고려사

한자 원문 한글 번역문

본래 백제의 땅으로, 의자왕(義慈王) 19년(659)에 신라 태종무열왕이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그 땅을 병합하였다. 경덕왕 때 전주(全州)와 무주(武州)의 두 도독부로 나누었으며, 진성왕(眞聖王) 5년(891)에 서면도통(西面都統)¹⁾ 견훤이 옛 땅을 모두 장악하고 후백제왕(後百濟王)을 칭하였으나 태조 19년(936)에 왕이 친히 정벌에 나서 승리했다.

성종 14년(995)에 전주 영주(靈州)·승주(淸州)²⁾·마주(馬州)³⁾ 등의 주현으로 강남도(江南道)를, 나주(羅州)·광주(光州)·정주(淸州)⁴⁾·승주(昇州)·패주(貝州)·담주(潭州)·남주(朗州) 등의 주현으로 해양도(海陽道)를 삼았다. **현종 9년(1018)에** 합쳐서 전라도로 하였다. 관할하는 목(牧)이 2개, 부(府)가 2개, 군(郡)이 18개, 현(縣)이 82개이다.

■ 고려의 국가 체제 : 성종대에 일단계 정비

■ 현종대 국가 체제 정착

➤ 지방제도의 완비 :

1018년(현종 9) 5도양계체제(五道兩界體制),
즉, 경(京)-목(牧)-도호(都護)-군(郡)-현(縣)=진(鎭)이라는 군현제의
기본골격이 완성

➤ 대거란(對契丹)관계의 해결 :

거란의 제2차 침입(1010년, 현종 1)과 제3차 침입(1018년, 현종 9)

[사료 1]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자 고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잤다.

그렇지만 양규를 비롯한 고려군의 저항이 큰 데다 현종이 거란에 직접 가서 항복
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거란은 현종의 친조도, 강동 6주의 반환도 얻어 낼 수 없었다.

거란은 1014년 3차 침입 때도 강동 6주를 점령하지 못한 채 우회해서 개경으로
들어와 국왕의 친조를 조건으로 철군하다가, 이 지역에서 2차 침입 때와 마찬가지로
고려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2차, 3차 침입은 거란이 모두 강동 6주 싸움에서 고려군에게 패퇴하면서 끝났다.
강동 6주 때문에 번번이 싸움에서 졌다.

3차 침입에서 거란은, 1019년 2월 강감찬 장군에 의한 이른바 귀주대첩의 결과,
크게 패하여 고려왕의 친조나 강동 6주의 반환을 다시는 요구할 수 없었다. 강동 6
주 지역이 고려의 영토로 확정되었다.

이듬해 거란과 강화해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까지 약
2세기간 우호관계 유지하였다.

[사료 2]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9주 중의 하나로 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다.

그 후 후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후백제의 수도로 멸망할 때(고려 태조 19년(936))까지 36년간이나 존속하였다. 후백제 멸망 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설치하였다가 태조 23년(940)에 다시 전주로 환원되었다.

993년(성종 12)에 승화절도안문사(承化節度安撫使)라 불렀고 995년(성종 14)에 전국에 12주 절도사를 두면서 순의군(順義軍)이라고 불러 강남도(江南道)에 소속시켰다.

1010년(현종 원)의 몽진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돌아올 때는 환대를 하였다.

이에 현종은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회유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1018년(현종 9) 지방제도 개편 시에 안남대도호부로 승격시켰고 전라도의 근간을 삼았다.

[사료 2]

나주는 원래 군 단위의 행정 구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주가 부상한 것은

(1)후삼국 시기에 왕건을 통하여 궁예에게 귀부하면서부터였다.

나주 나씨 나충례가 궁예 밑에 있었던 왕건과 결탁하여 나주를 점령토록 도와주었다. 이에 궁예는 왕건을 나주에 파견하였고 이 일대를 점령한 후 금성군에서 나주로 승격시켰다.

나주가 부상한 또 다른 이유는 (2)왕건이 나주에서 나주 오씨 부인을 맞아온 때문이었다. 나주 오씨 부인의 아들인 무(武)가 태자로 책봉되고 태조의 뒤를 이어 해종으로 즉위하였다.

나주가 또 한 번 고려 왕실과 밀착된 것은 (3)거란의 2차 침략으로 현종이 나주로 피난가면서였다. 나주 지역은 태조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나주가 왕건의 후비 나주 오씨의 출신지일 뿐 아니라 해종의 외가가 있었다. 현종 자신이 태조의 손자였기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주 지역으로 가면 자신을 잘 보필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나주에 10일간 머무르다 개경으로 돌아간 현종은 나주 사람들의 환대를 잊지 못해 현종 9년(1018) 지방행정제도 개혁 시 나주를 목(牧)으로 승격시켜 전주와 더불어 전라도(全羅道)를 탄생시켰다.

■ 전라도 탄생의 의의 : 견고한 지역 정체성

(1)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인 5도 중에서 전라도의 명칭이 가장 먼저 생겨남.

(2) 다른 도의 명칭은 자주 바뀌었지만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명칭 변화가 적음.

(3) 다른 도는 시대에 따라 영역이 자주 변했지만, 전라도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호남 문화 인식의 현황

‘호남’ 이란 말은 언제 어떻게 나타났나?

‘전라도’는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그보다 정체성 등의 단어에 걸맞게 정서적으로 구분되는 칭호
는 ‘호남’이란 별칭이다.

‘호남’ 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고려사』에는 없다.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 1447년(세종 29)
집현전 교리 하위지(河緯地)의 상서(上書)에 처음 나온다.

『세조실록』에 2건, 『성종실록』에 4건
『중종실록』부터 ‘영남’이란 말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사용

- 세조 이후 성종, 중종을 거치면서 등장하는 '호남'이란 별칭은 이제 전라도가 단지 행정구역상 구분되는 곳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구분되는 곳임을 의미
- 이는 오늘날로 이어지는 '호남'의 탄생이다.
- 16세기는 정치적으로 사림파가 등장하고 향촌사회에는 이른바 사족지배체제가 정립되어 가던 시기
- 따라서 호남 사림, 내지 호남 사족들이 호남이란 정서구역의 정서를 형성하는 주체



■ 호남에 대한 정서적 인식은 두 계열

① 사림들에 의한 것 ② 변방으로서의 인식

- ① 에서는 절의·비판·실천정신 등 의향(義鄕)적 성향을,
- ② 에서는 민중성이 부각되어, 소외, 저항, 한 등의 정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이 주는 삶의 질과 여유가 있어 예술적인 풍치를 보임으로써 ①과 ②모두에서 예향(藝鄕)의 소재들을 남겼다.

+ 미향(味鄕)

풍요로운 자연은 미향이라 불릴 만한 특성도 마련.

여기에 개방성, 진취성, 다양성 등의 특성들이 덧붙여져 호남문화의 특징을 이룬다고 본다.



■ 공식(公式)적인 호남의 역사 - 교과서

「**훈요십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 아예 훈요십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나머지 다른 교과서에서도
훈요십조에 대한 언급과 조목에 대한 제시가 있지만,
어디에도 문제의 8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식(公式)적인 호남의 역사 - 교과서

- 전라도와 관련해 비중 있게 다뤄진 것들을 살펴보면,
예향과 의향이란 이미지가 연상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나타난다.
예술과 저항, 봉기, 또는 수탈 등과 관련된 사실들이 주로 서술
- 공식적인 역사교육에서 전라도=호남은 예향과 의향, 그리고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주역 등으로 나오고 있다.
- 호남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호남문화 인식과 교과서의 인식에서는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 이는 호남을 예향과 의향으로 이해하는 지역정서와 맞는 것으로 왜곡이나 편향된 서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미지 왜곡의 구실

의향(義鄕)의 증거로는 동학농민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런 역사가 만든 '민주성지'라는 인상은 오히려 이념적 갈등, 정치적 소외로 이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전라도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전라도’

‘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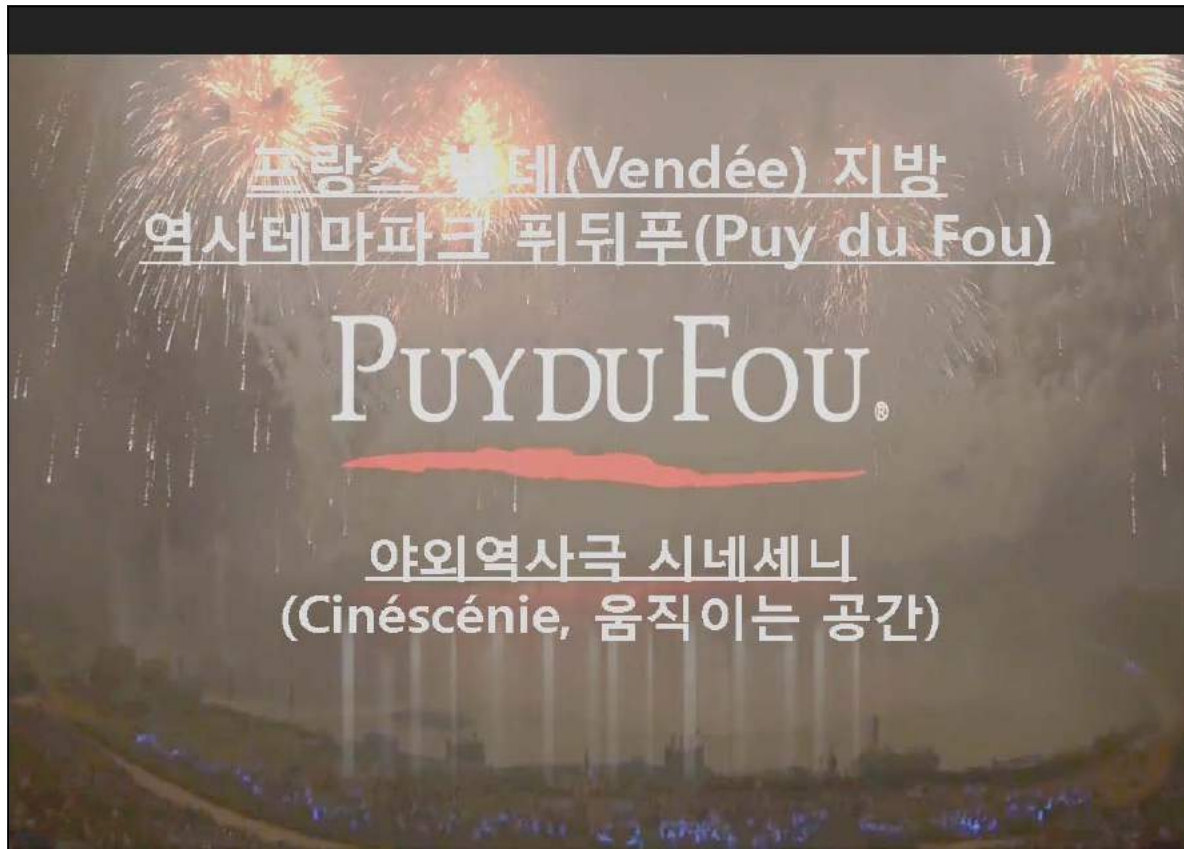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한,
소외,
차별,
지역감정,
김대중,
5·18민주화운동,
예향,
등등...



역사테마 파크
퓌뒤푸(Puy du fou)



[Voir le site de Noël](#)

PUYDUFOU.

[SPECTACLES](#)
[ENTRE LES SPECTACLES](#)
[HÔTELS](#)
[RESTAURANTS](#)
[COMMENT VENIR](#)
[GUIDE PRATIQUE](#)
[MON PUY DU FOU](#)
[COMMUNAUTÉ](#)

RÉSERVEZ VITE !

BILLETS
SÉJOURS

MA VISITE :

- Grand Parc
- Cinésénie
- Grand Parc + Cinésénie

[Voir les billets](#)

[Voir la carte](#)
[Télécharger la brochure](#)

OFFRE SPECIALE 2016
-20% sur tous vos billets
Grand Parc adulte
pour une visite en période jaune.
[Réservez vite >](#)

CRÉATION ORIGINALE 2016
Le Dernier Panache
[Découvrir >](#)

Puy du Fou
J'aime cette Page
Soyez le premier de vos amis à aimer ça.

Histoires de Ouf
Visitez le blog Officiel du Puy du Fou
[Le blog >](#)

NOUS SUIVRE

Facebook
 Twitter
 Pinterest

Google+
 Youtube
 Blog

À PROPOS

- Nous Contacter
- Réoulement
- Nos Engagements
- Nos Partenaires

Les cookies assurent le bon fonctionnement de nos services. En utilisant ces derniers, vous acceptez l'utilisation des cookies.

●●●● 16 ●●●●

■ 시네세니 = “조상들의 한풀이 한마당 잔치”

이를 통해 방데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테마파크로서도 성공하였다.

1789년 프랑스혁명 직후인 1793년 발생한 방데전쟁은 대혁명기 이래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대혁명에 반대했던 ‘반(反)혁명’으로 규정되었다. 보수적인 왕당파 귀족과 성직자의 음모에 방데 지방의 농민들이 가담한 것으로 기억되었다.

따라서 대혁명을 현대 프랑스의 시발점으로 간주하는 대다수 프랑스인들에게 방데란 이름은 극히 부정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공교육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방데전쟁은 비난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듯 방데 주민들은 반혁명주의자들의 후손으로 각인되어 왔다.

■ 시네세니

반면 이 지역의 민간인들은 방데전쟁 당시, 공화파 군대가 자행한 민간인 대량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전쟁 당시에 공화파 군대는 민간인 대량학살을 자행하여 전투에 가담한 농민군들은 물론 아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주민 10만 여명이 집단 살상 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다.



방데전쟁 당시의 유해는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발굴이 이어지고 있다.

■ 시네세니

그리하여 방데전쟁은 혁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혁명이 낳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대항혁명’**이란 평가가 등장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토대로 1978년 필립 드 빌리에(Philippe de Villiers)의 주도로 처음 시작한 **시네세니**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서 프랑스인과 유럽 전역에 방데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켰다.

방데인들의 기억 투쟁은 방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움직였다. 이같은 방데인들의 기억투쟁은 뫼뒤푸의 시네세니라는 방데인의 야외 역사극 공연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 시네세니

과거 제도권 역사에서 부여한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생산자라는 새로운 위상을 구축케 하였다.

이는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커, 1989년 테마파크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다.

1998년에는 주니어아카데미 개설, 2010년 뫼뒤푸 인터내셔널 출범 등 뫼뒤푸는 단순한 놀이동산 개념의 위락시설 수준을 뛰어넘는 문화산업체로 성장하였다.

2013년 현재, 연간 방문객 174만 명, 총 매출액 한화 795억 원의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 시네세니

시네세니는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방데에서 발생했고 방데인들이 참여했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밝음뿐만 아니라 어둠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반복하면서 역사의 진실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치는 축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성찰할 계기를 제공해 주는 축제와 문화의 결합이 퓌뒤푸의 성공 원인으로 손꼽는다.

이미지도 개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념, 이는 방데에 대한 기억이 달라짐으로써 방데의 시네세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라도 천년의 기념사업도 전라도에 대한 기억을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방데의 성공에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단합과 협동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http://blog.naver.com/khegel/220508205440>



퓌뒤푸(Puy du Fou), 남의 나라 '역사 테마파크'에서 배우는 역사와 교육

누구에게나 아픈 역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프고 고달프고 부끄럽고 잊혀졌으면 하는 역사가 하나 둘쯤은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편하고자 내가 가진 한줌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 역사를 달리 적어서는 안 됩니다. 치욕스럽고 남사스럽다며 역사를 달리 가르치고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러했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고, 누구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역사는 있는 그대로 씌어져야 마땅합니다.

설령 그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역사는 공정하게 남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핏줄이 얹혀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해서 저질러진 역사를 뒤집어 엮을 수도 없고, 없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또한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khegel/220508205440>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읽는 방법과 견해, 이른바 사관(史觀)은 공정한 기록 만
큼이나 중요합니다. 수백년 전 당연시되던 일이 지금은 천인공로한 범죄로 해석
될 수 있고, 그 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진 역사가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수치요 오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여기던 역사적 사건이 지금은 위대함으로 칭송 받
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와 시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유지하는데,
숫제 정반대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두어 개 아니 수십 개라
고 해도 그 기준은 정의로움과 공평함이어야 하며, 정파적 시각에 사로잡혀 그것
을 불합리하게 읽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사람들은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되었다 판단하면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그러한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주의합니다.
바로 그것이 발전이요, 역사가 던져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http://blog.naver.com/khegel/220508205440>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며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 진영에 유리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서, 왜곡하고 쪼아대며 내가 지지하는 사
람, 내가 속한 편이라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과오까지 화려한 포장술로 덮어주는 사
관과 역사 교육은 진정한 역사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앞에 지어내는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만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그것을 나
누어 가지며 토론하고 절충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그 역사를 이야기하며 프랑스 혁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세기말, 절대 왕정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제의 기틀을 다지며 개인의 가치와 존엄
이 우선되는 근대 민주주의의 뼈대를 만들었다 해고 과언이 아닌 프랑스 혁명, 결과
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평등의 가치는 다른 곳에 기원을 찾아야 했을 정도로 지고지순하다 할 것
입니다.

<http://blog.naver.com/khegel/220508205440>



그러나 프랑스 서부 무역항 낭트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 여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 아니, 시골 마을이라 해도 무방한 방데(Vandée)에 자리한 역사 테마파크 뤼뒤푸(Puy du Pou)를 들여다 보면 프랑스 혁명의 가치 나아가 우리가 가진 역사에 대한 인식에 고개가 갸웃거려지게 됩니다.

근대 민주주의와 시민 중심의 공화제를 이룩했다는 프랑스인들의 자부심 뒷편, 프랑스 혁명의 이름으로 학살당했던 방데의 시민들, 그 아픈 상처를 기꺼이 보듬으며 자발적으로 재현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역사 테마파크.

아픔을 아픔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했음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용기가 부럽습니다.

무슨 의도에서인지 객관적 역사조차 획일적,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요 근래 몇 명 움직임을 보며 먼 나라, 남의 나라 역사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진중한 고민을 해 봅니다.

■ ‘전라도’ = ‘호남’ 에 대한 기억과 기념

왜곡된 이미지의 대명사, ‘전라도’, ‘호남’

2018년 전라도 천년을 맞아 전라도의 부활을 위하여 바른 이미지 형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방데의 성공은 소중한 대안이 될 것이다.

“기억이 머물러 있는 모든 장소가 기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곳에 파묻혀 있는 기억을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람들의 자각과 의지가 동원될 때 기억의 장소가 생성된다.” (피에르 노라, 『기억의 장소』)

■ ‘바로알리기’의 부족

“子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不足徵也이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不足徵也
는 文獻이 不足故也이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杞는 夏의 後이고 宋은 殷의 後이다. 文은 典籍也요 獻은 賢也라.

-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를 통해 ‘가야’를 복원
-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언급한 ‘남북국’이 발해를 우리 역사 속에 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종휘의 『동사』에서는 만주를 우리 역사에 등장시켰다.

기록의 상실은 곧 호남역사의 상실로 이어진다.

■ ‘역사바로세우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2000년 1월 여야의원 공동 발의로 국회 통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2004년 2월 9일 국회 통과, 3월 5일 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2005년 5월 31일 제정

■ 동학농민혁명이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근대로 가는 길을 열었고,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으로
 이어져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 동학농민혁명이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 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네 가지 사업을 적시하고 있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 정미의병 당시 각 도별 교전 회수

구분 도별	교전 횟수		교전 의병 수	
	1908년(하반기)	1909년(상반기)	1908년(하반기)	1909년(상반기)
경기도	78	165	1,453	3,453
충청도	330	204	14,481	1,835
전라도	493	820	20,504	23,155
경상도	311	222	9,030	4,601
강원도	273	124	18,599	2,468
황해도	232	111	7,998	2,148
평안도	149	78	3,981	663
함경도	110	14	6,721	279
합 계	1,976	1,738	82,767	38,593

* 국사편찬위원회 편(1965), 《한국독립운동사》 I |



5 · 18 민주화운동과 헌법



독재 청산 없는 민주화/처벌 없는 과거사 청산

‘5·18 민주화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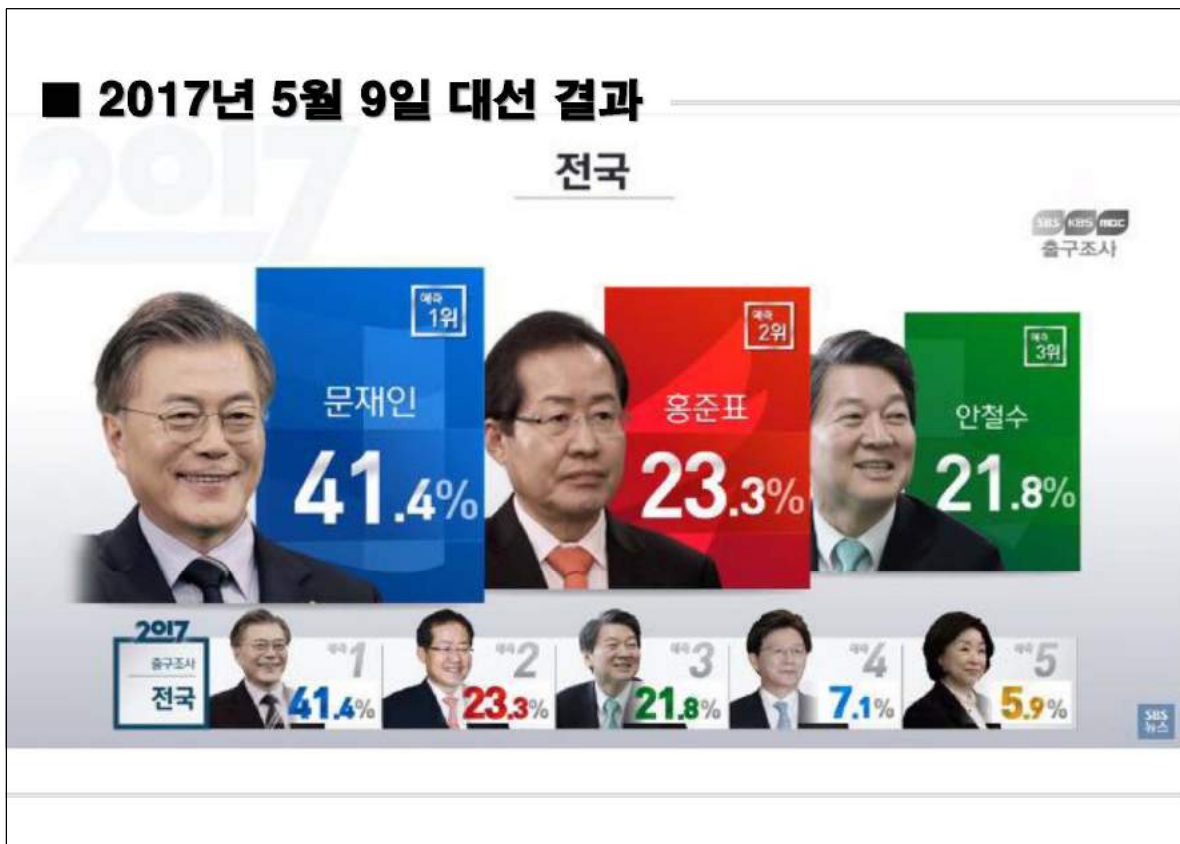
■ ‘5·18민주화운동’

1997년 재판 : “12·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17사건과 5·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

1997년 대법원 :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 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라고 적시

전두환, 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 선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복권되었지만, 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사법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독재 청산 없는 민주화로부터 한 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 쿠데타는 어떤 경우에도, **비록 성공하더라도, 결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이것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이 이루어낸 민주화의 큰 진전



■ 2017년 5월 9일 대선 결과



■ 정권교체 후 첫 5·18 기념식... 여야 정치인 집결



국정교과서 폐지 절차 마무리...검정교과서 일정도 연기

연합뉴스TV

검토본

최종본

23 뉴스

17:21

국정 역사교과서 공식 폐지...검정교과서 일정도 연기

▶

경 저수율, 1998년 준공 이후 처음 '한 자릿수'

▶

국회 기재위, 6월 7일

원/100원

1008.43

▼

5.49

재방송

23

연합뉴스TV

를 보는 또 하나의 서비스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제헌헌법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 하여 임시정부의 계승을 표방하였다.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된 **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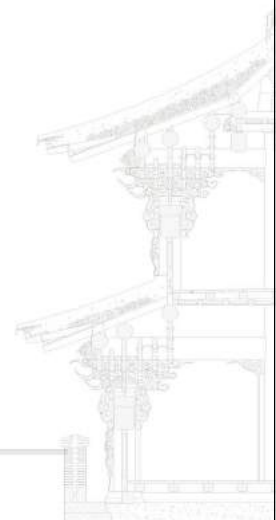
라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보다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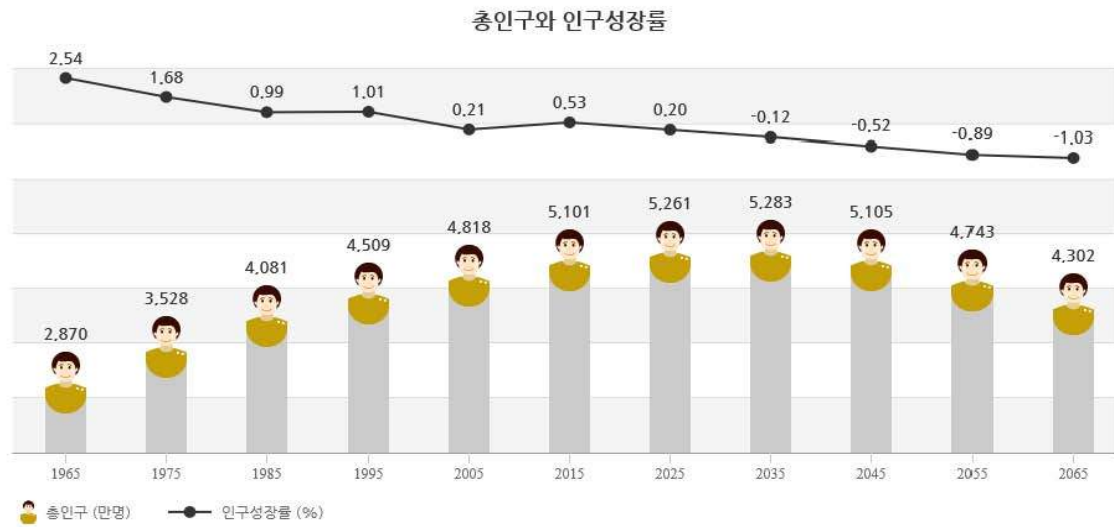
[데일리매거진]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겠다"



'호남'의 상생



인구



-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2031년에 5,296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2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에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되나, 이민·귀화 등 사회적 증가(국제 순유입)로 인해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은 2032년부터로 3년 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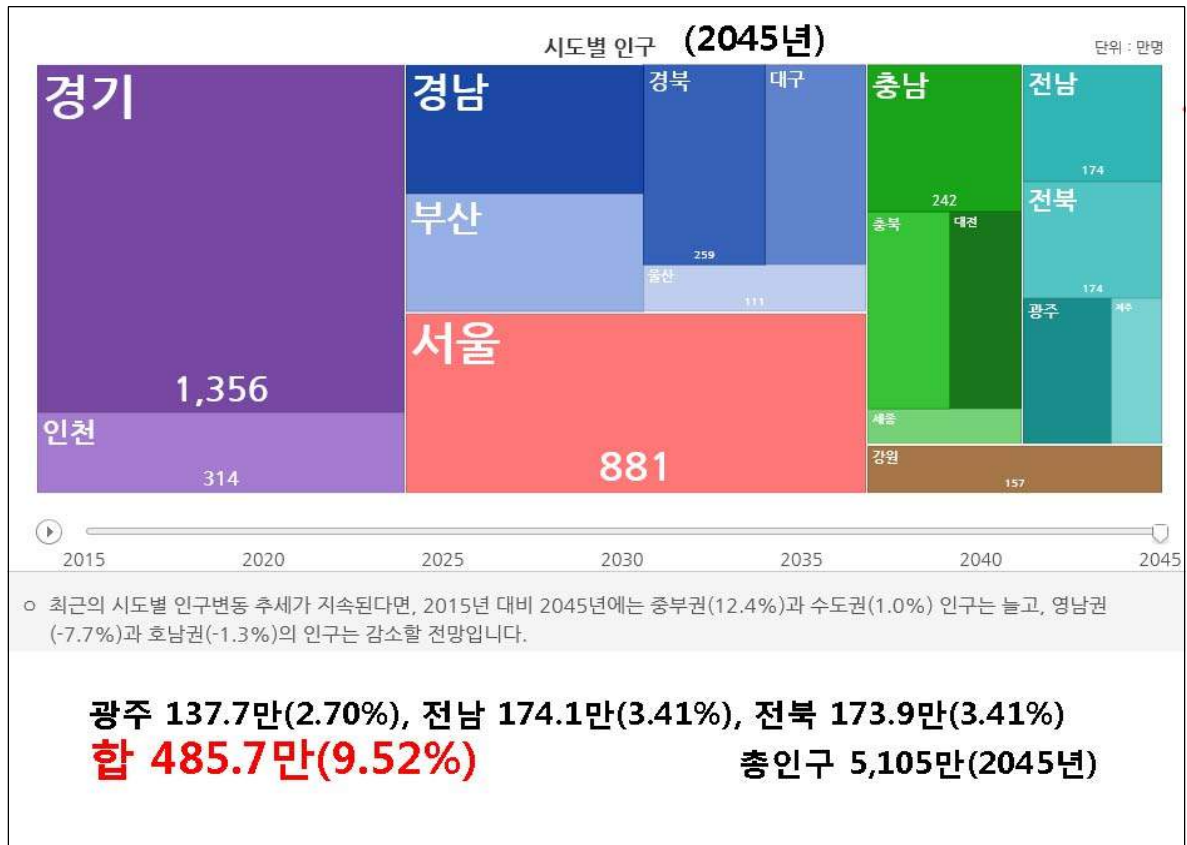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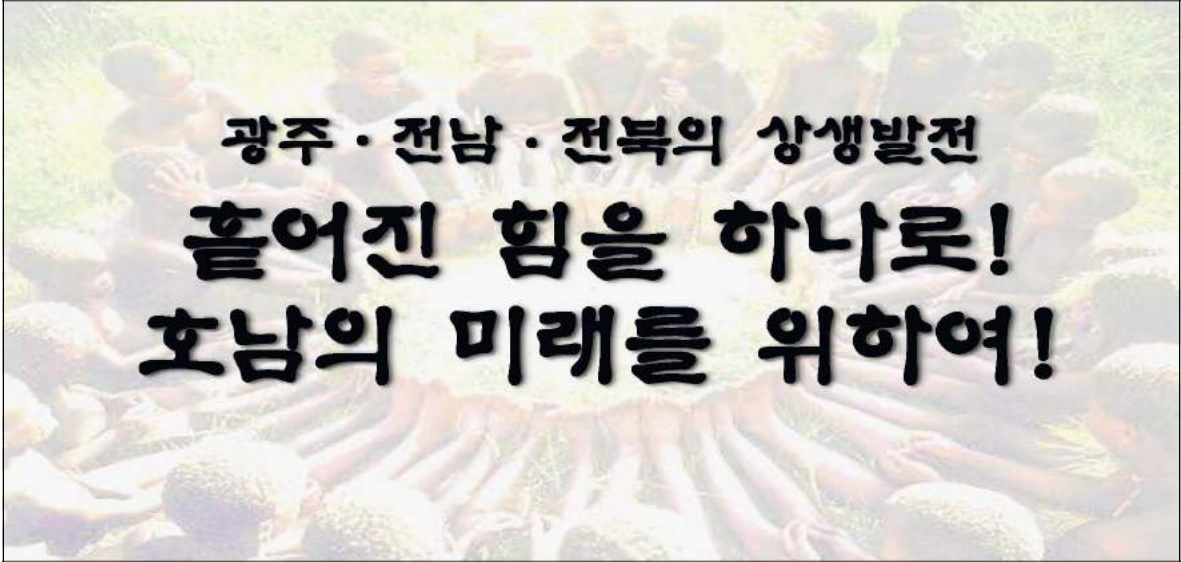
- 최근의 시도별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 대비 2045년에는 중부권(12.4%)과 수도권(1.0%) 인구는 늘고, 영남권(-7.7%)과 호남권(-1.3%)의 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광주 150.6만(2.95%), 전남 179.7만(3.52%), 전북 183.5만(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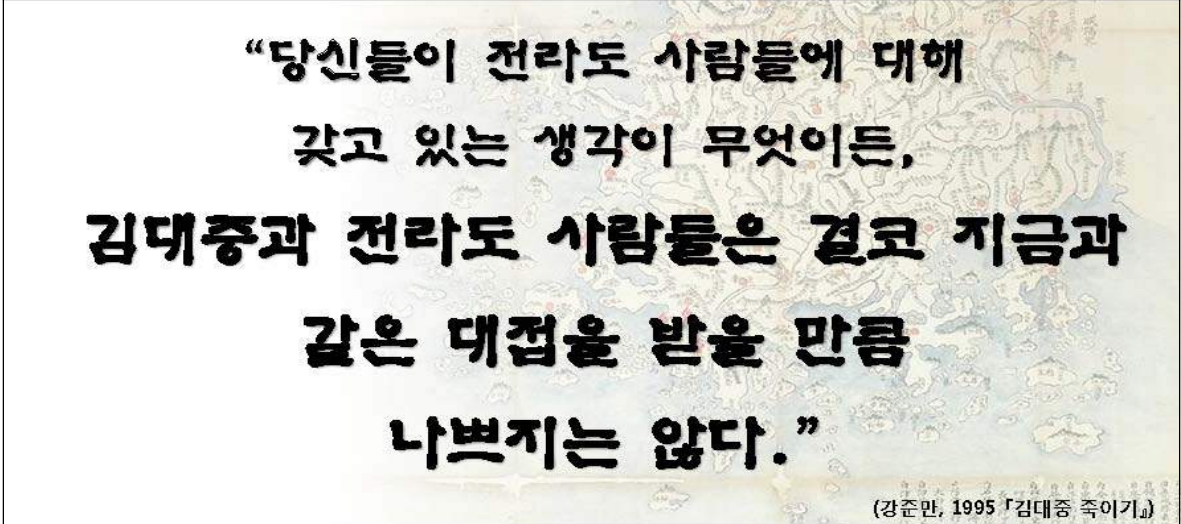
합 513.8만(10.07%)

총인구 5,101만(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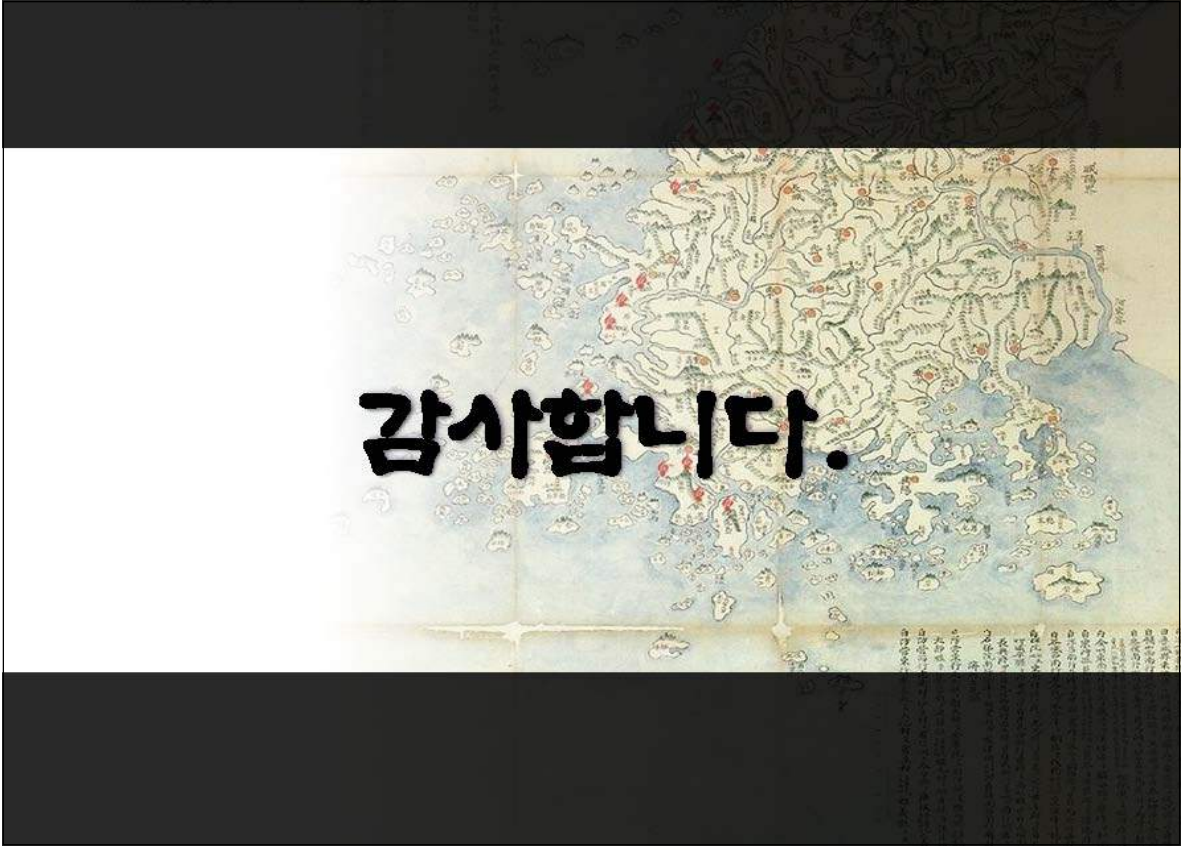


**광주 · 전남 · 전북의 상생발전
쏟아진 힘을 하나로!
호남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들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
김대중과 전라도 사람들은 결코 지금과
같은 대접을 받을 만큼
나쁘지는 않다.”**

(강준만, 1995 『김대중 죽이기』)



감사합니다.

패널토론

주제 :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좌 장 : 심 원 술 (한양대 교수/한국경영사학회장)

- 홍 성 덕 (전주대 교수)
- 최 영 태 (전남대 교수)
- 유 성 기 (동북아경제연구원장)
- 염 미 경 (제주대 교수)
- 송 진 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전라도 역사 재정립으로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자

홍 성 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1. 전라도 차별의 역사와 해결 방안

□ 전라도 차별의 역사는 위조문서의 정치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차별의 출발은 왕건의 「훈요십조」에서 찾고 있다. 943년 왕건이 죽기 전에 박술회를 불러 유훈으로 남겼다는 「훈요십조」 중 제8조로부터 전라도 차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훈요십조」는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우연히 최항의 집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현종에게 바쳐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즉 왕건의 유훈으로 전해온 것이 아니라 거란의 침입 시에 최항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위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 즉 「훈요십조」는 고려 초 왕건 당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문서가 발견된 현종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제8조의 차령 이남의 인물을 등요하지 말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태조 왕건의 ‘유훈’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는 「가짜 이시도루스 법령」이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부장」과 같이 위서가 ‘진실’로 전환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활용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교황의 권력과 황제 권력의 사이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위조 작업이 이후 정치 권력화 과정의 중요한 증거로 정치적 활용이 진행된 것이다. 「훈요십조」 역시 이시도루스 법령이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부장과 같이 위서(僞書)였음에도 12세기 반호남(백제)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진실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 고려 건국에는 전라도인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왕건의 뒤를 이은 혜종의 어머니가 나주오씨 장화왕후였으며, 최지몽, 박영규 및 승려 형미, 윤다,

경보 등이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 전라도 차별은 수탈의 정치화 과정이었다.

- 전라도 지역은 고대 이래로 물산이 풍부하고 넉넉한 곳이었다. 조선시대 16세기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토지는 전라도 지역이 가장 많았다. 경상도의 경우 전세(田稅)의 대부분이 대일외교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 전라도의 중요성은 더욱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1769년 당시 토지 규모로 볼 때 대일외교에 사용된 경상도 지역을 제외할 경우 총 601,316결 중 전라도는 33%인 199,220결이어서 국가 재정의 1/3을 전라도가 담당하고 있었다.
- 경제적 풍요로움은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상대적 수탈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전라도에서 실학이 시작(반계 유형원, 부안)되고 집대성(다산 정약용, 강진)된 것은 농업기반이었던 전라도에서 농정(農政)과 조세제도 등의 구조적 모순이 첨예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실학자들에 의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정치의 부재와 문란으로 전라도는 탐학의 땅으로 변하였고 전라도인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야 했다.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전라도는 산업화를 지탱하기 위한 ‘농도(農道)’로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 농업 경제의 풍요가 수탈과 근대화의 정치산업화 과정에서 ‘차별’의 이미지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전라도 차별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벗어나자.

- 전라도는 늘 ‘소외’ ‘낙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라도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단어들로 대변되고 있다. ‘한, 소외, 차별, 지역감정’의 대상으로 수많은 전라도 폄하어가 난무하고 있다.
- ‘전라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부정적·비판적·폄하적인 이미지로부터 긍정적·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뀌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학과 5·18민주화운동 등 시대 변혁과 혁명이 가지는 새로운 시대의 열망을 담은 긍정적 모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할 진실 찾기가 아직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와 아울러 우리 역사에서 동학과 5·18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전라도의 변혁·혁명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확산할 필

요가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전라도에서 출발하였고 전라도가 지켰다는 점을 긍정적 이미지로 정립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전라도 고대사 복원을 통한 전라도 뿌리 찾기

□ 전라도 역사의 출발, 언제부터 일까?

- 문헌사료에 기반한 전라도 역사의 출발은 오랫동안 ‘백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백제 이전에 전라도 땅에는 마한의 역사가 존재해 있었고, 8도 체제의 고착으로 분화한 가야지역=경상도의 도식에 빠져 전라도 지역의 가야 문화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 전라도 역사의 재정립은 첫째 마한 역사의 재발견으로 출발해야 한다. 백제가 전라도 지역을 점령(?)한 것은 4세기 이후 7세기 초에 이르지만 6세기 후반까지 마한의 세력은 존재해 있었다. 백제로 편입되기 이전 전라도에 존재했던 마한의 역사는 백제기 전라도 역사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다.
- 둘째, 전라북도 동부지역에 존재했던 가야정치세력에 대한 규명이다. 전라북도 동부지역 가야세력은 기존에 6가야와는 다른 별도의 정치세력의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대가야 고분군보다 대규모의 밀집된 가야계 고분군이 조사되었고 철의 왕국으로 불리는 가야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제철유적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에서 1백여 곳이 넘게 발견되고 있어 새로운 한국 고대사의 정립이 필요하다.
- 셋째 후백제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다. 후백제는 오랜 기간 동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여 부정적이고 패륜적인 국가로 인식되어 있으나 후백제의 위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후백제에 대한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대로 된 후백제의 역사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전라도 고대사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라도 지역 고대사에 대한 조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고대 전라도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라도 고대사 복원은 체계적인 조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전라도 지역의 마한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마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문헌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고고학적 연구에 기반할 수밖에 없

다. 전라도 지역에서 조사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를 ‘마한의 역사’로 재정리해야 한다.

- 아울러 백제시대 전라도 지역의 문화유산과 백제의 국제교류 및 부흥운동 등에 대한 역사도 재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동부지역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야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전라도 지역의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 3대문화권 사업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연구를 토대로 박물관 등의 건립과 문화유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야사 연구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전라도 지역의 조사 연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후백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역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892년 광주에서 일어나 900년 전주로 천도한 후백제의 역사를 규명하는 것은 전라도 고대사 복원의 핵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라도 고대사 복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내에 가야문화유산과 후백제 유산을 조사연구를 전담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3. ‘전라도 가치 재발견’을 위한 전라도 역사 편찬

□ 전라도 역사 편찬의 필요성과 방향

- 역사 속에서 ‘패배’와 ‘소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던 전라도는 그로 인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전라도에 대한 지금의 평가와 이미지는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서의 전라도 역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전라도 역사 편찬의 필요성은 전라도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개선하고 올바른 전라도 역사상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 전라도 역사는 ‘전라도 천년의 역사’를 기본으로 진행해야 하나 ‘전라도’ 명칭이 제정된 1018년 이후의 역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공간적인 전라도의 역사는 1018년에 ‘지역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공간의 역사가 그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2016년 12월 경상북도에서는 ‘경북정체성 확립’ ‘경북인의 정신 재조명’ 차원에서 2011년부터 ‘신라사대계’ 편찬 사업을 추진 총 24억원을 투입하여 5

년 동안 총 136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 등 총 30권으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였다. 발간사에서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는 “신라 없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면서 신라사대계 편찬사업은 우리 민족의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1977년부터 20년에 걸쳐 발간한 『서울육백년사』 10권을 증보 수정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4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총 40권의 『서울2천년사』를 간행하였다.
- 전라도 역사서의 편찬은 전라도 천년이 아닌 선사시대~현대에 이르는 전라도 지역의 종합적인 역사서로 편찬되어야 한다. 경상북도의 ‘신라사’와 같은 국가사가 아니며, 서울2천년사와 같은 자치단체의 역사가 아닌 생활문화적 공간으로서 전라도를 포괄하는 역사서로 기획되어야 한다. 2018년 전라도 천년이라는 시의성에 맞추기 보다는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전라도의 역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 전라도 역사서의 활용 방안

- 전라도 역사서의 편찬과 보급은 전라도에 대한 근거없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서의 편찬은 정체성 수립과 연결된다. 역사 편찬의 기본 본질은 역사적 사실 규명을 통해 후대의 거울이 되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전라도 역사 편찬 사업 역시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개선하고 몰랐던 전라도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밝힘으로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전라도 역사 편찬은 기본적으로 전라도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다. 전라도인들이 꿈꾸어 왔던 세상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런 노력 속에서 형성된 전라도의 정신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정신은 지역을 설명해 주는 키워드로 지역민들이 대동(大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전라도 역사서는 인구집중과 노령화에 따른 자치단체 붕괴설이 제기되고 있는 21세기 지방 문제를 새롭게 조망하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정체성의 재정립과 인식의 개선에 유용한 작업일 것이다. 하나의 통합된 생활문화권역으로서의 전라도 모습을 규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상을 정립하여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농촌의 붕괴와 자치단체의 몰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라도 역사 편찬은 대한민국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전라도의 역할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라도인의 노력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천년 D-1년 심포지엄 좌담회

호남정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자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교수)

1. 호남정치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을 대가로 발전했으며 특히 호남인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발전했다. 1987년 6공화국 헌법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갖추어진 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호남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 또 요구받고 있다. 호남인들은 이런 역할과 명예에 보람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곤하고 힘들어 한다.

금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촛불혁명의 성과물이었다. 그러나 명색이 민주세력의 중심지라고 자처하는 호남은 이 자랑스러운 축제 앞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은 중앙정치와 지역정치를 동렬로 보지 않고 중앙정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정치를 부차적으로 치부한 데서 나온 필연적 결과이다. 독재 대 반독재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지배한 시기에는 이런 선택이 나름대로 의미와 정당성을 가졌지만 2010년대 이후에도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가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젊은이들의 정치권 진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광주시 5개 자치구 구의원의 평균 연령은 50대이다. 20-30대가 기초의회에 진출한 것을 과거와 비교하면 1대 때는 총 30명 이었는데 7대(현 의회) 때는 1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지표는 우리 지역이 젊은 정치인의 육성에 매우 소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2. 경쟁구도의 정착화

호남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경쟁구도의 정착이다. 민주주의는 복수정당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호남지역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일당 지배지역이었다.

경쟁이 없다보니 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설령 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해 주어도 그는 현실에 안주하다가 2류 정치인으로 전락해버리곤 했다. 금년 대선 때 유력한 대선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이런 정치환경의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막론하고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정치인을 키우고 배출하려면 경쟁구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정착되려면 다당제가 안착되어야 한다. 다당제가 안착되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해 승자 독식주의를 타파하고, 득표율이 더 많이 반영되며, 소수세력의 대변자도 정치권 진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경쟁구도가 정착되려면 또한 모든 것을 대통령 선거에 거는 호남인들의 정치의식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전부냐 제로냐(all or nothing)’의 극단적 양자 택일주의가 지속되는 한 호남 정치에서 경쟁구도는 지속되기 어렵고, 미래의 정치발전 역시 희망적이지 않다.

호남의 정치적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00% 승자독식주의 제도인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처럼 정당간 연합정치가 일상화되는 환경이 가능한 권력구조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어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과거와 같은 극단적 차별을 받지 않는 정치환경과 권력구조의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형 헌법 채택 운동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는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개헌논의가 과거와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지방분권의 확대와 강화에 대한 공감 확산이다. 이번에 개헌을 할 경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형 헌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행정부서와 재정권을 함께 이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헌법에는 경제력에 여유가 있는 지역과 여유가 없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 등 지역 간 균형 잡힌 재정력 확보를 위한 세심한 내용과 절차가 명기되어야 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감소를 감안할 때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년도	호남지역 의석수/전체 지역구 숫자	전체 지역구 대비 비율
2016년(20대)	28석/253석	11.1%
1996년(15대)	37석/253석	14.6%
1985년(12대)	36석/184석	19.6%
1948년(제헌의회)	51석/200석	25.5%

상원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지역대표성에 토대를 두고, 상원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해 내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운동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역민들을 광범위하게 결합시킨 개헌운동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4. 자치역량의 강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역할이 커진다. 따라서 우리 자체의 정치 및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시·군·구 의회 의원 등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화의 고장에 걸맞게 합리적 토론문화를 발전시켜야 하고, 정치권만이 아닌 교육, 노동,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부문들의 민주적 관행,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민주적 사고와 규칙이 확산,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우리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실험이 진행 중이다. 광주 시민정치 페스티벌, 마을 총회, 정책 마케팅(전국 참여 부스 설치)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지역 단위의 풀뿌리 시민단체도 많이 출현하였다. 이런 시도들은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준)정치조직의 형성을 의미하며, 정치혁신을 위한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에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마을 단위 생활정치를 활성화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광역시·도-광역시·도 의회-시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5. 이해관계 단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

1949년 호남의 인구는 전국 대비 25.3% 이었다. 현재 호남의 인구는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호남의 쇠락과 위기를 이 인구변동 인자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는 없을 것이다.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보다 희망적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 사이의 소통과 단결,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통합적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모든 인적·경제적 조건이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리고 지역 간 이기주의 때문에 협력이 원활치 못하며 광주와 전남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 공항 이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상생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방분권의 강화에 대비해서라도 광주와 전남 모두 상호 협력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과 간의 협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적 용어를 빌려 말하면 호남이야 말로 대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민·관 사이에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보 개혁 진영은 모든 것을 정치 중심으로, 이념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만이 아닌, 경제와 지역 발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6. 마무리 말

민주화의 고장에서 우리가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공간적 민주주의의 확대·강화이다. 기회의 평등이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고루 적용되어야 하고, 독일 헌법처럼 우리 헌법도 지역 간의 ‘생활관계의 통일성’을 명문화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역 정치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민주화의 도시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전라도 천년 D-1년 심포지엄 좌담회

전라도 미래 천년, 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경제권에서 해답을 찾자

유 성 기(동북아경제연구원장)

1. 지역 간 격차의 원인

- 산업화 이전에 전라도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로서 국가경제 주도
 - － 전라도는 해방 전까지 인구, 농어업, 해상교통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 － 인구(인구 총조사) : 1911년 2,609천명(18.9%) → 2015년 5,201천명(10.2%)
 - － 지방세 징수 실적 : 1911년 598천원(20.9%) → 2015년 4조 8,213억원(7.8%)
-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소외됨
 - －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어업 중요성이 감소하고 노동인력 이탈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하
 - －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주요 산업단지와 주요 중견기업은 경부축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 － 남한에 X자를 그리면 경부축인 북서쪽부터 남동쪽까지의 사선은 SOC부터 산업단지까지 밀집해 있으나, 강원도부터 전라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선은 여백으로 남아있는 상태
- 196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2. '광주형 일자리 모델'

- 각 지자체의 최대 관심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 － 인구의 감소는 지자체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합계 출산률 1.17명)과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임

-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은 지자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
- 그러나 인구 늘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음
- 인구늘리기의 가장 좋은 해법은 대형 공공기관(예컨대 나주의 한전 유치)이나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것임
 - 대기업의 유치는 입지, 노조, 임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운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주축이 되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그 해법이 될 것임
 - 광주시가 추진하는 ‘연간 30만 대 생산할 친환경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유치는 본 공장 직원과 1~3차 협력업체까지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임
 - 미국이 유치한 동일 규모의 앨라배마 현대공장과 기아조지아공장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대응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기회요인 발생
 - 전 세계가 시작점에 서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옴
 -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이미 연구개발 성과를 많이 보유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빠른 속도로 앞서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반면 기초 연구개발 성과가 부족하고, 인공지능이나 CPS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불리한 상황
 -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칫 잘못하면 전라도가 미래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 추진 중
 -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청정에너지 신산업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기회요인도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한전이 추진 중인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임
 -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임을 생각하면 에너지밸리 프로젝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근저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산업
 -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전라도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함

- 전라남·북도의 농생명복합벨트 구축 가능
 -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 농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중
 - 전라도가 가진 농생명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라도의 세 자치단체가 공동 협력할 경우, 국가농생명복합벨트로 확대할 수도 있음
 - 1차산업인 농수산업을 2차산업인 음료·식품제조업과 연계하고, 유통과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며, 축제나 관광, 체험과 연계하는 6차산업으로 구조를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중요
 - 이 때 농업용 드론이나 로봇 농기계, 바이오기술을 접목해서, 농수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접목될 경우, 미래 식량산업의 거점으로 전라도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친환경자동차, 신소재산업 등)
 -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중국의 거센 추격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빠르게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함
 -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산업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친환경 자율주행차산업으로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적응하고, 연착륙을 이끌어내야 함
 - 예를 들어 철강은 고강도 경량소재산업으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은 기능성 화학소재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함
 - 조선산업도 단순한 저부가가치 대형선박보다 중소형 레저선박이나, 신재생에너지 접목한 새로운 선박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 한국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해양으로 나가는 첫 관문이 바로 전라도!
 - 문재인 정부도 일찍이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해양수산부에서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는 이야기를 할 정도임
 -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전라도가 해양으로 나가는 가장 첫 관문이라고 할 것임!
 - 앞으로 해양시대에 전라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함

4. 아시아 경제권시대 대응

- 사드(THAAD) 문제로 주춤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라도 경제에서 중요한 기회요인
 - 중국은 한국에게 애증의 대상이며, 경제적으로도 기회와 위기
 - 사드사태 이전에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면서 관광객의 무한한 공급처였으나, 현재,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속속 철수하고 있음
 -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는 미지수이나, 사드사태가 수습될 그 날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 내 식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라도의 풍부한 먹을거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과 수산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수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함
- 떠오르는 시장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활용해 전라도 경제가 비상해야 함
 - 한편 중국 시장에만 너무 의존할 경우, 사드사태와 같이 위험성이 커지므로 인도와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특히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며, 베트남 또한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임
 - 전라도가 이 두 시장을 공략한다면, 대중국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을 것으로 생각함
- 아세안, 인도와의 경제협력
 - 현재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와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음
 - 2007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노무현 정부)하였고, 2009년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확대해 온 결과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무역대상국과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음
 - 2016년 대 아세안과의 무역규모는 1188억 달러로 중국 다음으로 많고, 해외투자도 2016년 51억 달러로 미국에 대한 투자 다음으로 많은 투자를 기록하였음
 -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이번 사드 사태처럼 정치 군사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수출은 점차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차츰 줄여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과 중국과 거의 비슷한 규

모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ASEAN 10개국의 총인구는 약 6.5억명(2016년), 면적은 약 448만 km²로 2014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2조5700억 달러, 경제성장률 4.7%를 기록하였고, 총 교역량은 1조 5368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8105억 달러, 수입이 7263억 달러(2012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통해 시장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 인도는 면적3,287,263km², 인구 약 12억8200만 명 세계2위 (2017.07. est. CIA 기준)로 GDP 2조 4,545억\$ 세계6위 (2017 IMF 기준)로 무섭게 중국을 추격하고 있음
 - 1967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먼저 아세안을 출범하고 브르나이에 이어서 뒤늦게 참여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구 공산국가의 경제성장세는 아세안 전체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소득 증가에 따라 중산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의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고, 낮은 임금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시장임
 - 이와 함께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역내 국가 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는 우리나라에 안정적 수출시장의 확보와 함께 생산네트워크의 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 한·아세안 무역의 특징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다. 이는 한·아세안 제품생산구조가 아세안이 생산단계 중 주로 가공·조립부문에 특화하고, 우리는 이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서는 범 국가차원의 경량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 소재·부품 거점단지를 광주나 순천시(해룡산단) 등에 조성하여 가볍고 강한 경량 우수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여 아세안과 인도에 수출하는 길을 열어야 함
 -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은 “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지자체의 아세안 투자를 증대시켜서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세안지역의 중산층 인구 증가와 소비증대에 맞

취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아세안에 대한 소비재 수출을 증가하고,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제품 차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함

전라도 천년 D-1년 심포지엄 좌담회

연대와 협력의 열린 공동체를 만들자

염 미 경(제주대 교수)

주제: 연대와 협력의 열린 공동체를 만들자

I	• 인구문제 현황, 인구감소시대
II	• 어떻게 '열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III	• 포용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I. 인구문제 현황, '인구감소'시대

요즘 미디어는, 2016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의 '전달'과 '해석'의 홍수...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11738001&code=940100)

인구절벽 후 절망사회 '탈출구'는 없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31719541&code=940100)

'노인들의 나라'... 아이들 인구 처음 넘어서... 일부 지역은 노인이 대다수가 된 지 오래다. **"전남은 이미 2015년에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65세 이상 사람들이 도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901/86113125/1>)

2017 늙고 홀로되는 대한민국...가구주 중위연령 51.3세 '나홀로' 가구가 대세... 70세 이상이 비중 가장 높아... **다문화가구 사상 처음 30만**(31만6000천 가구, 1년 전보다 5.6% 증가) **넘어서**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8319725Y>)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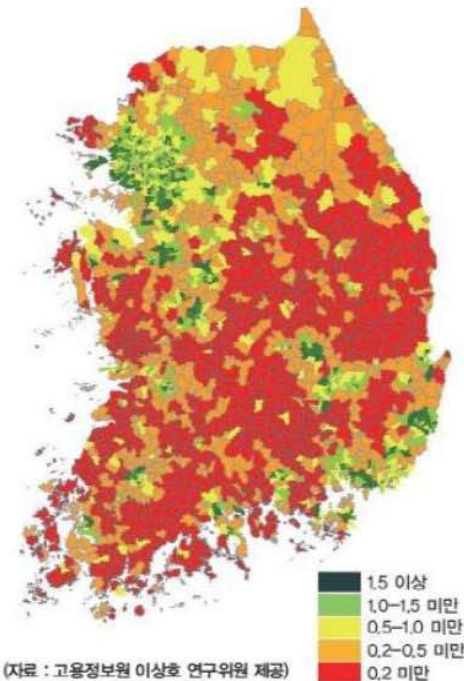
○ 인구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다!

= 인구는 일차적으로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지만 그 사회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제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의 인구현상은 과거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고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지역 인구구조 변화는 타 지역 또는 한국사회 전체 변화와 맞물려 일어남.

전국 읍·면·동 수준의 지방소멸 위험

마스다 보고서('지방소멸', 2014)에 근거해 작성.
2016년 현재 39.7%가 지방소멸 위험 직전, 즉 붕괴상태로 볼 수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는 것을 제시.(전남 6곳 포함)
•경북 23곳, 경남 14곳, 충남 6곳, 강원 3곳, 충북 2곳
(<경향신문> 2017.01.21 발췌)



(자료 :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제공)

○ 전라도지역 인구현황(2017년 8월 현재)

- 전남: 1,895,974명(한국 전체인구 중 약 3.66%)
- 전북: 1,855,985명(한국 전체인구 중 약 3.58%)

* 광주인구 1,466,642명

**** 인구감소 추세 지속(전년 대비 전남은 약 0.36%, 전북은 0.5% 감소),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유치지역인 무안, 나주, 순천 등을 제외하고 감소추세, 전북은 거의 모든 지역이 감소추세임.**

⇒ 과거에도 그러했을까?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1945년 해방 이후 해외동포 귀환 등으로 1959년에는 약 3,042,000명으로 인구가 급증했고, 한국전쟁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196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보여 1970년에는 최고 4,004,832명을 기록했음.

**그러나 한국의 산업화 시대 이후 전라도지역은
줄곧 인구감소지역으로 존재해왔다.**

=> 1970년대 이후 대도시로 향한 이농현상(이촌향도)으로
2010년 기준 대비 43%의 감소치를 보임.

* 198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분리

○ 한국의 산업화 시대 인구대이동(이촌향도)은
전통적인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의해 주도되었고, 대표적인 이주자는 전라도
사람들이었음.

• 심지어 제주의 산업화와 지역개발 시기 제주의 인구 변화
를 추동하고 제주에 현대적 의미의 이민시대를 열었던
주역도 전라도사람들이었음. => **제주지역의 경우-**

<표 1> 제주 이외 지역 출생 제주도 지역민의 출생지 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주: 기타에는 북한지역 출생자와 외국,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이창기(1999: 92)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표 2> 제주 유입인구의 지역 분포
(단위: %)

연도	타도출생자계 (실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기타 (외국)
1965-70	100.0 (14,925)	15.7	5.7	3.1	1.5	4.3	5.4	36.8	8.5	16.7	2.3
1970-75	100.0 (20,056)	19.9	6.7	3.5	1.4	3.1	4.5	38.1	4.5	16.6	1.7
1975-80	100.0 (21,474)	23.4	5.2	3.0	1.2	4.0	3.4	28.5	6.5	16.4	8.4
1980-85	100.0 (25,421)	30.6	8.8	3.0	1.3	3.6	3.5	17.4	6.7	22.5	2.6
1985-90	100.0 (29,107)	29.0	10.3	3.6	1.1	4.2	3.1	15.9	7.5	23.8	1.5
1990-95	100.0 (32,124)	28.4	15.3	2.3	1.5	2.6	3.3	10.3	5.9	25.5	4.9

자료: 이창기(1999: 95)에서 재인용(각 년도 국세조사 보고서).

○ 1960, 70년대 지역주의가 정치이데올로기로 작동 하면서 전라도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전라도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정착하든 차별 경험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집단적 결속력으로 대응하였음.

⇒ 정착지역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출신지역에서 형성한 연결망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이주지에 적응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함.

⇒ 산업화 이후 각 지역에 정착한 전라도사람들과 이들이 조직한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집단화를 다룬 연구가 많음.

⇒ 향우회의 정치활동과 선거개입에 대한 정착지역에서의 부정적 정서가 커짐.

⇒ 이것이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 것은 아닌지 ...

○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감소문제, 지방도시의 존속을 둘러싼 논의의 급부상과 활성화

* 지방의 소멸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지표('인구재생산력 지표'): 20-39세 여성인구 이동
(일본_ '마스다 보고서'('지방소멸'), 2014)

* 2016년 말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까지 만들어 논란 빚음.

⇒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징: 6가지 모델

= 산업유치형: 산업유치로 인한 이익을 육아와 환경 정비에 투자

= 베드타운형: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인구가 증가

= 학원도시형: 대학, 전문학교, 연구기관을 통해 젊은층 유입

= 콤팩트시티형: 도시기능 집적을 통한 효율성 추구

= 공공재 주도형: 국가 공공사업을 통한 지역재정 안정

= 핵심산업 개발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 개발(자립형)

→ 일본의 과소(過疎)문제와 과소지역 대책

1. 1차 과소문제(1960-70년대): 원인-젊은층의 도시로의 유출, 사회변화-아기 붐 세대의 유턴취직과 2차 아기 붐.
2. 2차 과소문제(1990년대): 원인- 인구이동+인구의 자연감소, 사회변화-버블경제 붕괴시기와 겹쳐 '한계부락(마을)' 문제가 별로 주목 받지 못함.
3. 3차 과소문제(2010년 이후): 원인-행정개혁, 지자체 재정문제, 합병문제, 사회변화 -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재정문제가 심화됨. '한계부락' 문제 재등장.

* 한계부락(마을):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50% 이상인 마을을 지칭하는 말로, 노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사회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른 곳을 이름(구분: 존속부락, 준한계부락, 한계부락, 소멸부락).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 -> 한계부락에 대한 관심, **결국 한계부락 논의 출발점은 과소지역에 대한 대책**

→ 일본의 과소지역에 대한 대책

1.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1970)
2. 과소지역진흥 특별조치법(1980)
3. 과소지역활성화 특별조치법(1990)
4. 과소지역자립 촉진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0)
5. 과소지역자립 촉진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국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수정, 과소대책선정지역 추가(2014)

* 참고) 일본에서 과소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2010년 개정기준) : 인구요건(1960년에서 2005년 사이 45년간 인구감소율)과 재정력요건[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평균 재정력지수(시.정.촌의 표준적 행정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세금 등 자기재원비율)가 0.56 이하]

→ 일본에서 과소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계부락'

논의의 본래 목적 :

인구의 자연 감소 경향 관찰과 지역간 비교, 고령화율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역 발견,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지 지역의 해체와 소멸을 위한 논의가 아님.

*** 언론에 의해 지역소멸과 해체 논의로 오용**

* 부락재생을 위한 실천: 가족과 부락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 주민 스스로 예측하고 파악해 대응해나감.

한계부락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 지자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컴팩트시티모델' - 지역의 주요시설을 중심 시가지에 집중시킴; 젊은 세대가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중심시가지로 모여들게 됨; 젊은 층은 중심부에, 고령층은 주변부에 사는 형태 고착; 주변부 황폐화 등의 문제

→ 일본의 과소문제와 한계부락 논의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1. 인구감소문제를 효용성의 차원에서 풀어가는 것의 효과와 문제점 진단
2. 미디어가 전달하는 지역 이미지의 위력
3. 지역주민 스스로 찾아가는 지역재생의 방법

Ⅱ. 어떻게 '열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내면화시키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지역민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출신지와 출신국이 서로 다양한 지역민들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즉, 전라도 사람들은 어떠한 지역성(locality)과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을 만들어가면서 지역발전을 꾀해나갈 것인가?

초국적·초지역적 이주가 증가하면서 다문화화 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정체성은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 1990년대 후반 전지구화, 지방화가 빨라지면서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생활문화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살려 주민통합과 함께,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지역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시도된 바 있음.*

“한국인들의 주거지 이동만 보더라도 이제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온 장소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적다”

- 학업과 취업 등의 이유로 태어난 곳을 떠나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지 이동은 전지구화와 지방화시대에 더욱 빈번해진다.
- 주거이동률이 낮았던 산업화 이전 시기에서 지역 정체성이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귀속지위(ASCRIBED STATUS)에 속했지만, 주거이동률이 높은 현대 한국의 일상 생활에서 지역정체성은 개인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획득지위(ACHIEVED STATUS)에 속하게 되었다.

- 이제 지역은 더 이상 고정되고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며
지역의 정체성도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 기초하기
보다는,

**지역민들이 ‘어떤 지역을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따라,
그리고 지역민들이 자신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와
접합되어 지역정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

→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기초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제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된 것이다.”**

Ⅲ. ‘포용’과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유동하는’ 정체성·복수의 지역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은 사는 장소는 공유하고 있어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
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쟁점들과 지역의 미래
비전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정체성은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접합되어 상황
에 따라, 응집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는 역동적 개념!”**

⇒ **지역정체성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주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문화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나 지역사회가 단일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국가나 지역 내 다양한 집단의 차이는 억압될 수 있다.”

“태어난 고향이나 출신국을 떠나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인정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 내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진정한 공존사회가 될 수 있다.”

좀 더 개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서는

1. 출신지와 출신국이 다양한 지역민의 생활모습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역분위기 조성
2.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소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 의식의 고양이 필요함.

지역 밖으로는

1. 전라도/전라도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방안 마련
2. 지역 밖 및 해외 거주 전라도사람들에 대한 연대와 정착 및 생활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함께 살아가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 모색

1. 세계의 사회·문화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세계성과 지역성 간의 새로운 접합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물리적·공간적 근접성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안의 사회적·심리적·문화적 거리감을 없애는 것임.
3. 전체사와 지역의 역사가 통일된 관점에서, 지역의 내재적 발전과 외부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지역 기반의 조성은 매우 중요함.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지역사회의 수용성은 커질 수 있다.”

23

※ 주요 참고문헌

- 염미경. 2016. “산업화시대 이주자 공동체로서 향우회의 역할과 변화: 제주의 호남지역 향우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1: 81-119.
- 염미경. 2015. “산업화시기 제주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지역사회학》, 16(1): 49-90.
- 염미경, 한상희. 2014.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성 분석과 중학교 지역학습 자료의 구성.” 《시민교육연구》, 46(2): 155-200.
- 문순덕, 염미경. 2014. 『제주 이주민의 지역 정체성 정립에 관한 기초 연구』.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2014-07
- 염미경. 2012. “제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양상.”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서울: 보고사, pp. 125-157.
- 염미경. 2011a.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제주도연구》, 35: 1-38.
- 염미경. 2011b.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 김민호 외.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 pp. 15-37.
- 염미경. 2006. “지역화와 지역정체성, 그리고 지역화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8(2): 101-136.
- 윤택림.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 되기.”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307-345.
- 이창기. 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대구: 영남대출판부.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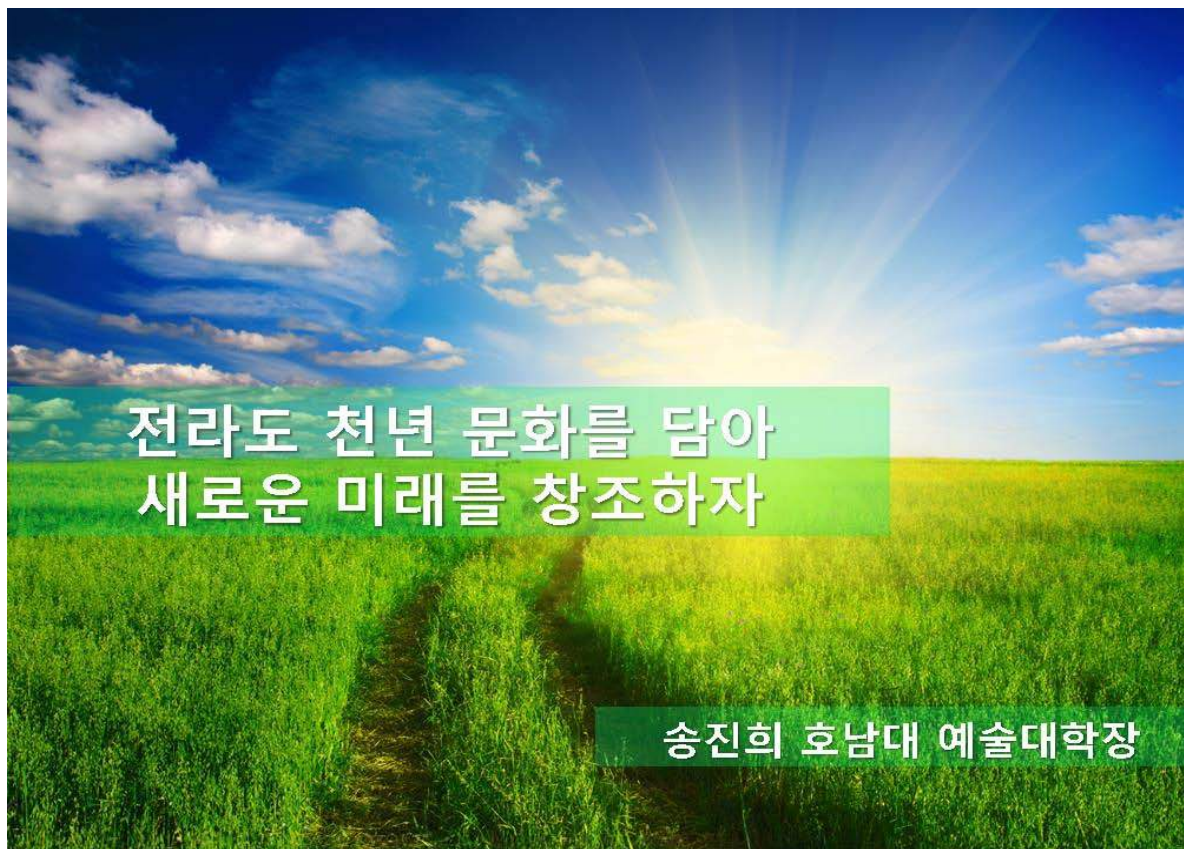
24



전라도 천년 D-1년 심포지엄 좌담회

전라도 천년 문화를 담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

송진희(호남대 예술대학장)





2. 한국의 세계 유산(호남)

	호남	영남	기타
유형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2000년)	-석굴암·불국사(1995년) -해인사장경판전(1995년)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한국의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년)	-종묘 -창덕궁 -화성 -제주화산섬과용암동굴 -조선왕릉 -남한산성 -가야역사유적지구
(잠정목록 등재)	-강진 도요지 (1994) -서남해안 갯벌 -염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낙안읍성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한국의 전통산사	-대곡천암각화군 -우포늪 -김해 · 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중부내륙산성군/ 외암마을/
무형	(2003년) 판소리 (2013년) 농악	(2009년) 처용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강릉단오제/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원거리당영등굿/ 가곡/ 대목장/ 대사장/ 줄타기/ 락전/ 긴장문복/한산포시차기/ 아리랑/ 줄타리기/ 제주해녀문화
기록	5. 18 민주화운동기록물 (2011년)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1997년)직지실재요결(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조선왕조의제(2007년) 해인사 대장경 판넌 계경판(2007년)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프렉판(2015년)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년)

2. 문화유산 활용

<소쇄원>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2. 문화유산 활용

<나주 복암리 고분 Ancient Tombs of Bogam-ri, Naju >



2. 문화유산 활용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2. 문화유산 활용

<금동식리(金銅飾履)>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2. 문화유산 활용

<최고, 최초의 비단, 철기, 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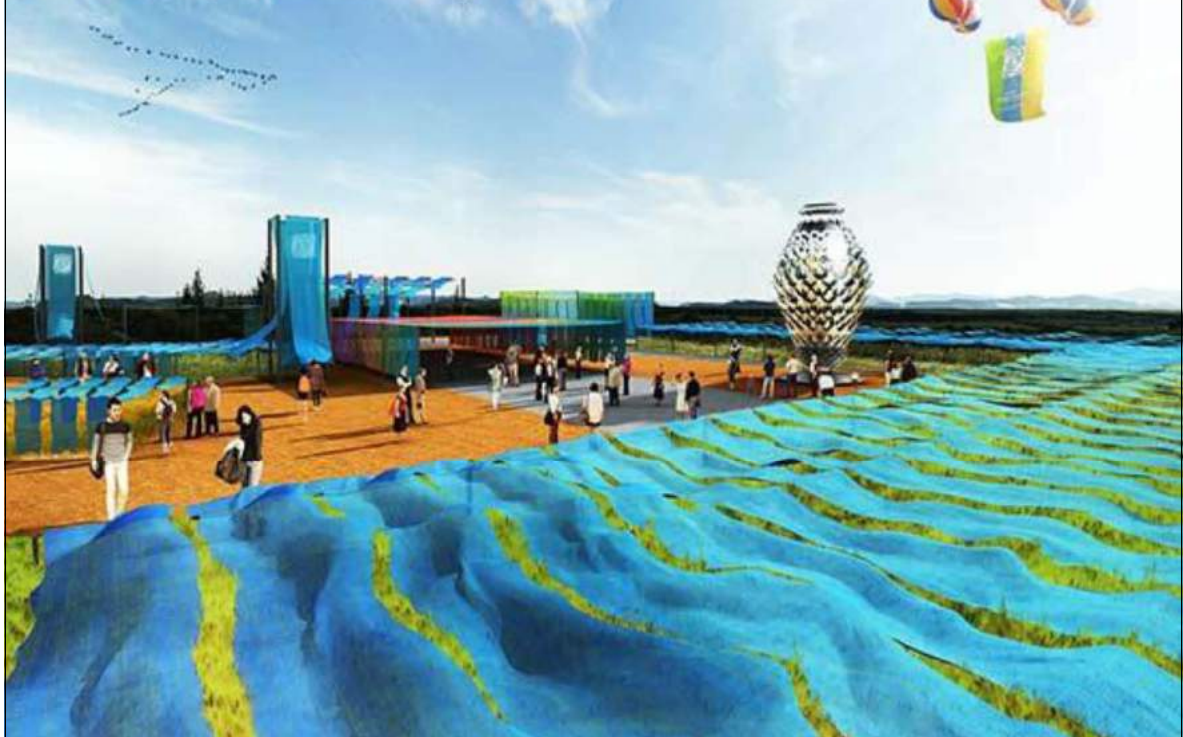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2. 문화유산 활용

<나주 천연염색, 실크 메카>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2. 문화유산 활용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거북선 Turtle Ship>



2. 문화유산 활용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EnCyber.com

<판옥선>



2. 문화유산 활용

< 화차 Multiple Rocket Launcher >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the Sustainable Design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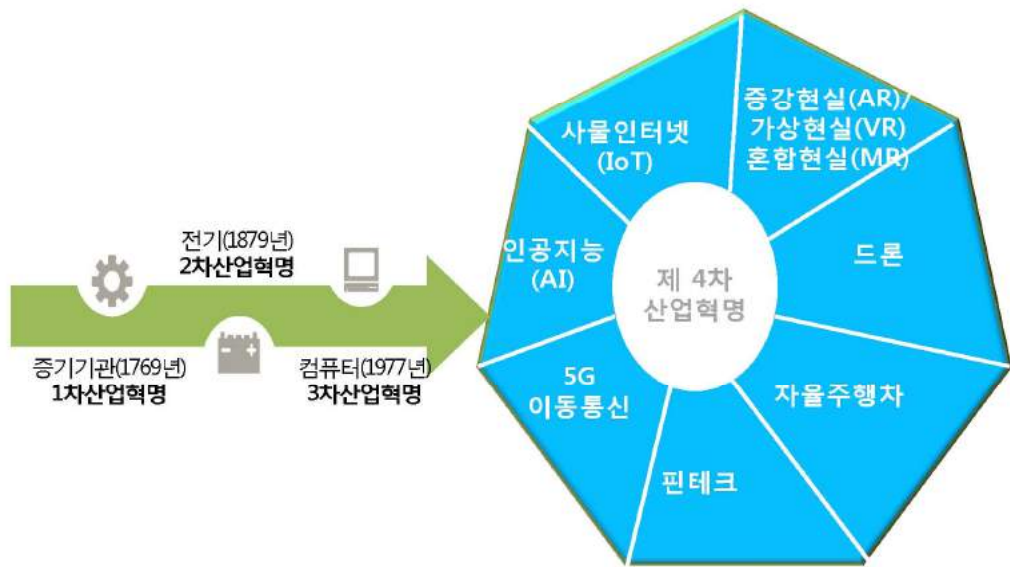


2. 문화유산 활용

< 우주발사센터 Space Cen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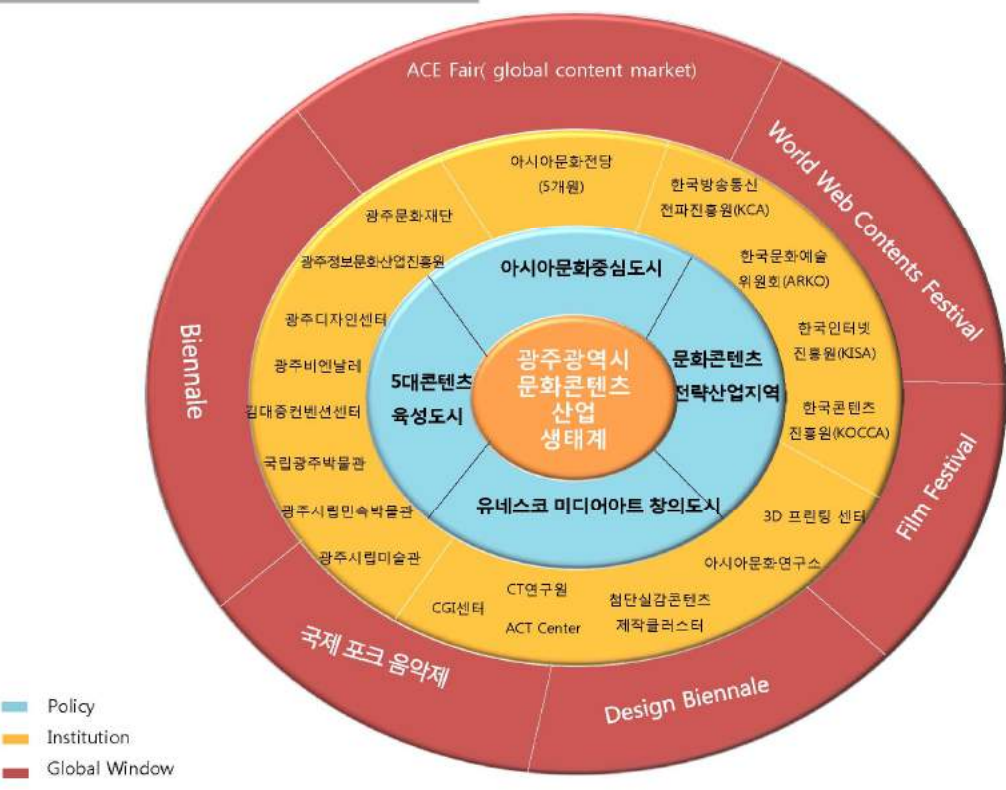
3.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주요 기술



3. 전라도 잠재력



3.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개관

A vibrant landscape with a bright sun low on the horizon over a green field, with the text '감사합니다.' (Thank you) overlaid on a green rectangular background.

부 록

-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호남권 3개 시도(광주·전북·전남)는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이 되는 2018년을 맞아 지역민의 자긍심 회복과 전라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추진경과

- 호남권 정책협의회,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합의 : '15. 11.
* '08년 중단되었던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해 '14년 10월부터 재가동, 운영 중임.
- 전라도 천년 관련 학술연구 수행,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 '15. 12. ~ '16. 10.
- 호남권 정책협의회,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확정(7개 분야 30개 사업) : '17. 3.

2 기념사업 개요

□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전라도 천년, 환황해시대의 중심
목표	천년 역사의 재정립과 미래 천년 창조기반 구축
기본 방향	◆ 역사적 가치 발굴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자긍심 회복 ◆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 추진 ◆ 기념공간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유대감 형성

□ 7대 기념사업

전라도 이미지 개선	전라도 천년사 편찬, 기획 홍보, 천년 기념 슬로건 제작 등을 통해 전라도 천년 역사를 재정립하고 전라도인의 정체성 확립
전라도 천년 문화관광 활성화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해외 호남향우회 고향 방문, 호남권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간 유대감 형성 및 문화관광 활성화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	천년맛이 타종식,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 등 차별화된 기념행사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경축 분위기 확산
학술 및 문화행사	D-1년 기념행사, 특별공연 등을 통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미래 천년을 기획
문화유산 복원	광주 희경루, 전라감영, 나주목 관아 등 전라도 대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 제고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공간 조성
전라도 천년 숲 조성	가로수길, 역사,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융복합한 천년 테마 숲을 조성하여 전라도 미래 천년 관광거점으로 육성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현황

분 야	세 부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주관 시도
합 계	7개 분야 30개 세부사업		4,594	
전라도 이미지 개선	① 전라도 천년 연중 캠페인	'17~'18년	5	광주
	② 전라도 천년 기념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	'17.4.~'18.1.	0.9	전남
	③ 전라도 천년사 편찬	'18~'22년	15	전북
전라도 천년 문화관광 활성화	① 천년 기념 한마당 페스티벌	'17~'18년	18	광주
	②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17~'18년	2.1	전남
	③ 전라도 천년 국내외 관광 홍보	'17~'18년	3	전남
	④ 전라도 천년 기념 청소년 문화교류	'18년	0.3	전북
	⑤ 전라도 천년 명품여행상품 운영	'18~'20년	1.5	전북
전라도 천년 대표 기념행사	①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식	'18.1.	1.5	광주
	②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18.4.	2	전남
	③ 전라도 천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	'18.10.	2	전북
학술 및 문화행사	① 전라도 천년 D-1년 기념 심포지엄	'17.10.	0.2	전남
	② 전남도립국악단 D-1년 특별공연	'17.10.	0.8	전남
	③ 전라도 미래천년 포럼	'18.2~10.	0.5	전북
	④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공연	'18.7.	0.8	광주
	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천년의 꿈'	'18.9~11.	1	광주
	⑥ 전북도립미술관, 전라 밀레니엄 展	'18.9~11.	1	전북
	⑦ 전북도립국악원, 전라천년 공연	'18.9~11.	0.8	전북
	⑧ 천년 기념 해외 호남 향우 고향방문 행사	'18.10.	0.3	광주
	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천년테마 특별전	'18.10.	2	전남
	⑩ 전라도 천년 국제 관광 컨퍼런스	'18.10.	1	전남
문화유산 복원	① 광주 희경루 중건	'17~'22년	60	광주
	②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6~'18년	63	전북
	③ 나주목 관아 복원 및 나주읍성권 재생	'15~'24년	615	전남
전라도 천년 랜드마크 조성	① 천년의 빛 미디어 창의파크 조성	'17~'20년	440	광주
	②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18~'22년	450	전북
	③ 전라도 천년 정원 조성	'17~'21년	450	전남
전라도 천년 숲 조성	①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	'16~'20년	1,200	광주
	②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18~'22년	826	전북
	③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	'17~'21년	430	전남



MEMO



MEMO